

아큐톤 북셀프의 일대 전환 힘사운드 S62 Speaker

HiM  *Sound*
S62 Speaker



"Made in Korea"



"혁신의 실마리 - S62"



S62 는 트위터와 우퍼 모두 아큐톤 유닛을 사용했다. 정확히 말해 독일 툴 & 파트너에서 생산하고 있는 1 인치 아큐톤 세라믹 역동 트위터와 동사의 7 인치 아큐톤 세라믹 미드/베이스 우퍼를 사용했다. 2 웨이 2 스피커 시스템으로 저음 반사형 타입 설계다. 후면 상단에 포트 1 개를 마련해 위상 반전을 피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클로저 로딩 방식이다. 한편 기존 버전에서 캐비닛 MDF 두께 및 인클로저 깊이/넓이 그리고 포트 면적 등이 세밀하게 수정되었다.



전면 배플은 가볍고 단단한 카본시트를 사용하고 있다. 주파수 응답 범위는 저역은 38Hz 에서서부터 고역은 30kHz 까지 커버하는 유닛의 성능 덕분에 광대역 특성을 획득했다. 크로스오버는 2.6kHz 에서 끊었다. 배플은 아주 약간, 약 2 도만 기울여놓았다. 후면 바인딩포스트는 싱글 와이어링에 능률은 87dB, 임피던스는 특이하게도 6 옴으로 설정했다.

스피커는 누구나 재료만 있다면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오디오 컴포넌트 중 하나다. 따라서 자작이든 공방 수준 제작자들도 그럴싸한 유닛과 중국산 인클로저로 다양한 구성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한편 스피커는 모든 오디오 컴포넌트 중 턴테이블과 함께 '제대로' 만들기는 가장 어려운 제품이다. 수치로 떨어지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튜닝은 제작자의 경험, 음악과 레코딩에 대한 치밀한 이해와 분석, 기술적 노하우와 직감 등이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 국립 물리학 연구소) 같은 곳이 스피커 메이커와 긴밀히 협력해 파인튜닝과 주파수 특성 검토를 지원하지만 국내는 그런 인프라와 협력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힘사운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설계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설계 기반 그리고 유닛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캐비닛 및 크로스오버 설계를 참고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일일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야하는 고난의 연속이다. 캐비닛 소재와 그 구조, 내부 브레이싱 구조 및 목재의 강성과 두께, 스피커 로딩 방식과 포트의 구경 및 포트 면적, 포트 주파수 설정 그리고 포트의 소재도 모두 결정할 사항들이다. 유닛의 구경 선정과 조합, 유닛의 위치와 유닛의 간격, 그리고 트위터와 우퍼의 단위 시간대 스피드 차이에 따른 위상 정합 문제도 충분히 반복 테스트를 통해 정확히 설계에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전면 배플의 디자인과 소재는 각 유닛의 음파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것도 예민하게 고려되어야 옳다.



"셋업"

힘사운드 S62 는 어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 철저히 독자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개발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업체와 공조하면서 꽤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앰프는 오디오 아날로그 푸치니 20 주년 애니버서리 인티앰프 그리고 코드 DAVE DAC 를 활용했고 케이블은 모두 헤밍웨이 제품을 사용했다. DAVE 의 경우 프리모드가 아닌 DAC 모드로 전환 후 -3dB 고정출력으로 세팅했다. 모두 오렌더 N10 을 통해 네트워크 스트리밍 형태로 PCM 포맷만을 재생하기 위해 PCM plus 전용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에 들어갔다.



"리스닝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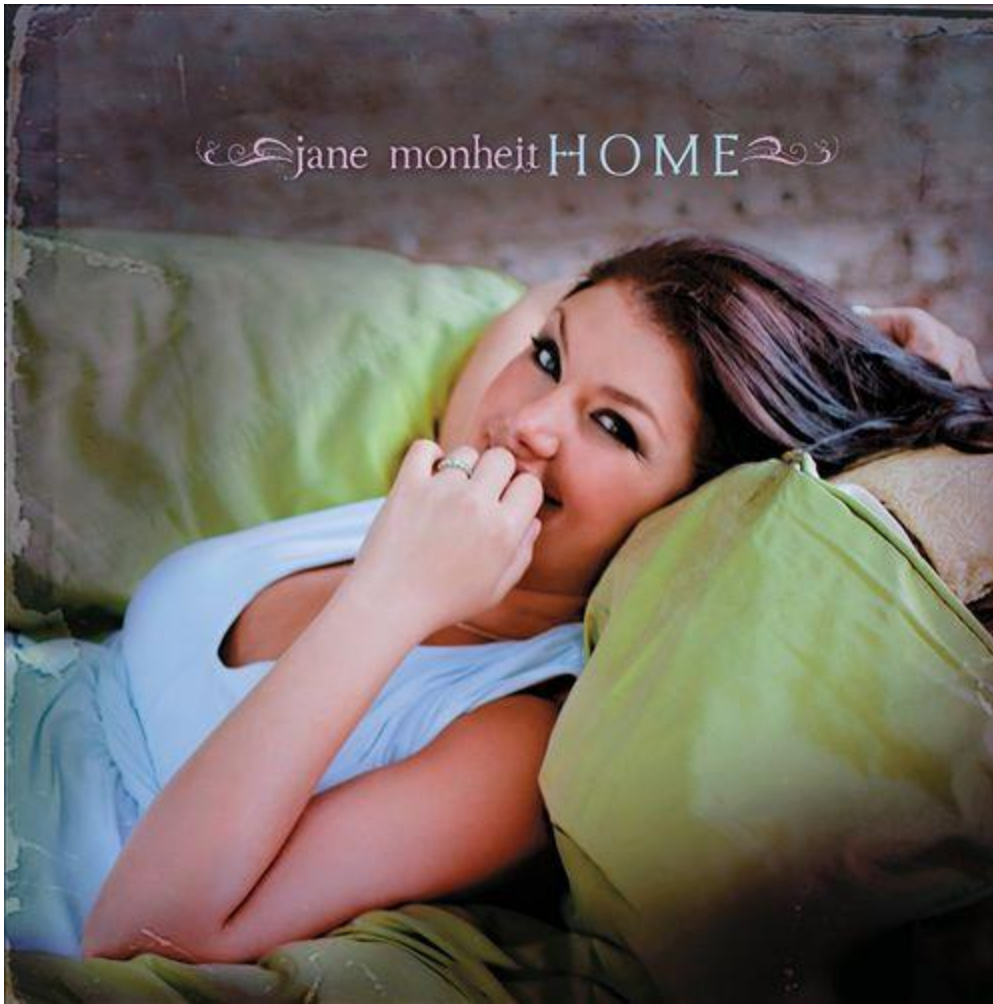


Alice Sara Ott & Francesco Tristano -A soft shell groove

Scandale

이번 S62 를 처음 듣는 순간 나는 음정과 밸런스가 표준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모니터 타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차 범위 안에 안전하게 연착륙했다는 의미다. 엘리스 사라 오토의 'A soft shell groove'에서 피아노 건반의 하모닉스엔 사뿐사뿐 쿠션이 느껴진다.

아직 겨울의 스산함이 남아있는 어느 이른 봄날 한바탕 쏟아 부은 소나기 세례 후 물기가 약간 스며있는 대지의 느낌이다. 말랑말랑한 건반 터치가 마치 피요르드 송어처럼 날쌔다. 아큐톤의 기민한 옥타브 이동과 어떤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는 말끔한 입자가 선명하다. 음정과 밸런스 또한 플레인지급 스피커에 대비해도 안정적이다.



Jane Monheit - A Shine on your shoe

Home

S62 에서 음표들은 매우 빠르고 정교한 페시지를 그려나간다. 제인 몬하잇의 'A shine on your shoes'에서 그녀의 보컬은 매우 큰 컨트라스트로 채색된다. 열고 날쌔 구간과 짙고 심도 깊은 악곡의 구간이 매우 명확하게 대비되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파인튜닝이 되기 전 오리지널과는 밤과 낮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마치 힘사운드가 아닌 다른 메이커로 인지될 정도다.

기존의 심각한 단점, 즉 매우 높은 음정과 더불어 중역이 부풀어 튀어나오며 낮은 대역은 얇고 왜소하게 끝나는 용두사미같은 밸런스가 보란 듯 사라졌다. 제인 몬하잇의 보컬은 싱그럽고 발랄하지만 절대 나이를 속이지 않는다. 여전히 기민한 반응과 더불어 묵직하고 슬랩한 저역이 탄력적이다. 생생한 생명력과 정확한 음정, 세부 표현력 등에 힘입어 독보적인 사운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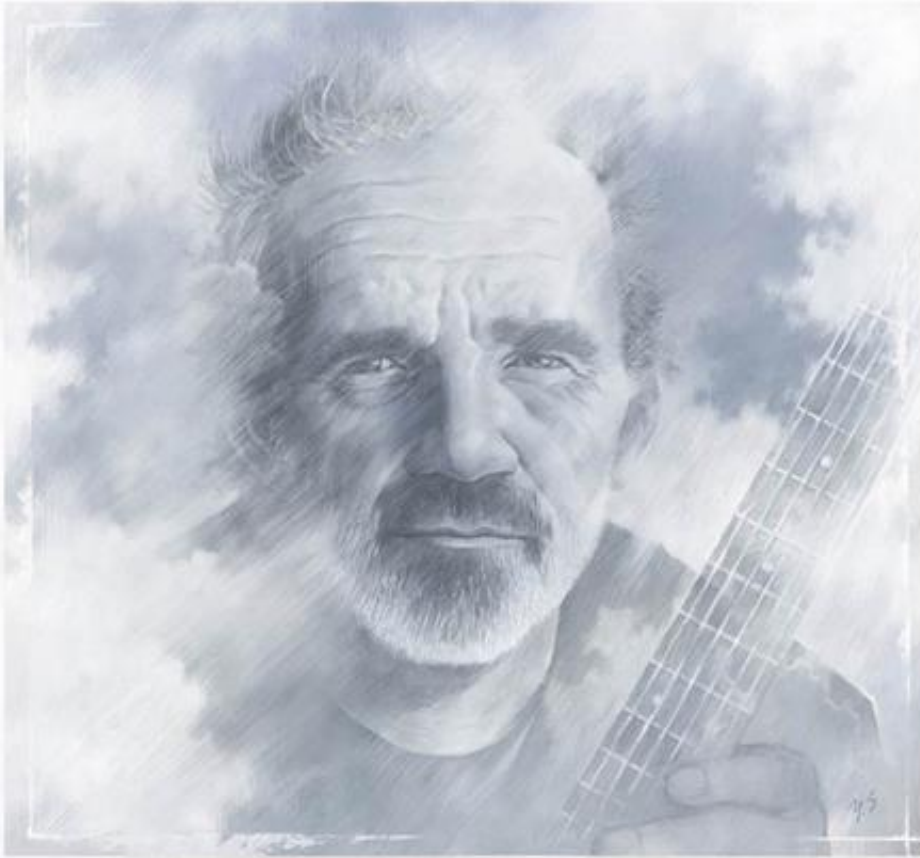
Dan Laurin - Vivaldi Recorder Concertos

Vivaldi Recorder Concertos

비발디 리코더 콘체르토에서 댄 로딘의 리코더의 기음은 따스하다기보다 강건하며 싱싱하다. 안나 파라디소의 하프시코드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총천연 하모닉스는 마치 한겨울 이른 새벽 창가에 서린 서리꽃을 깨끗이 닦아낸 듯 선명한 표면 텍스처에 눈이 시리다.

밀도는 매우 높으면서 섬세한 하모닉스로 인한 미세한 잔향은 포근하게 공간을 감싼다. 좌/우 채널을 오가는 산뜻하고 예쁜 리코더의 개방감은 목관의 맑고 목가적 잔향을 싣고 세련된 앰비언스로 공간을 채운다. 소프트 돔에서는 스캔스픽 베릴륨의 그것처럼 초고역이 펼쳐내는 아련하고 은은한 여운을 남긴다.

Eric Clapton &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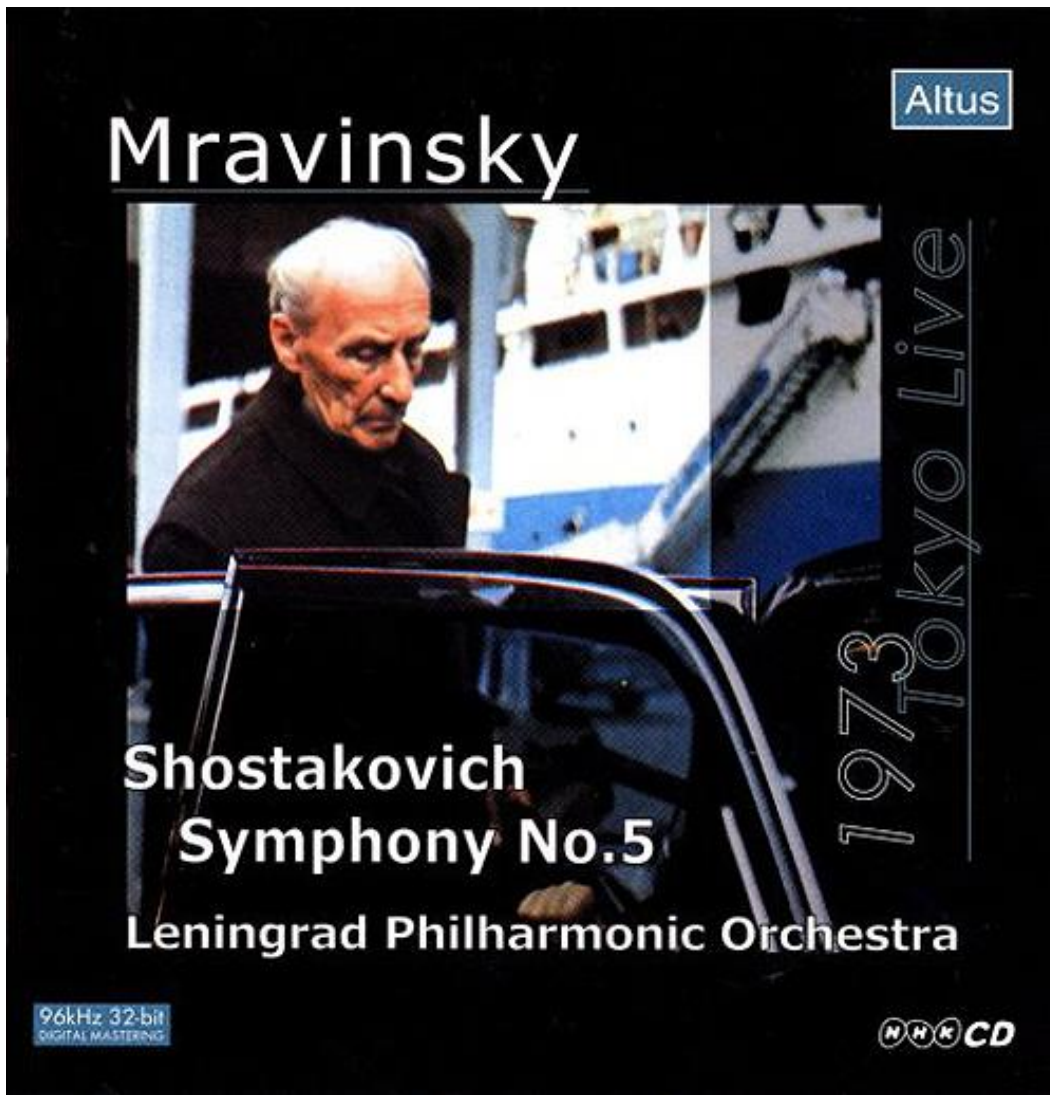
The Breeze
An Appreciation of JJ Cale

Eric Clapton & Friends - Magnolia

The Breeze

S62 의 저역 특성은 기민하며 저역 해상력, 세부 표현이 뛰어나다. 에릭 클랩튼의 'Magnolia'에서 저역은 매우 깊으면서 dB 감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S62 는 클래식은 물론 팝/록, 재즈도 가리지 않는 관용적인 스피커다. 이 부분은 앰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청음에 사용한 앰프들마다 매우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마침 시청실에 들어온 푸치니 인티앰프는 과도한 댐핑과 응집력보다는 여유롭고 포근한 반응 특성을 가지고 있어 S62 와 매우 뛰어난 앙상블을 보여준다. 보컬은 중간 레이어에서 다소곳이 노래한다. 톱툼하거나 공격적인 고역 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S62 는 푸치니에서 그 전에 전혀 느낄 수 없는 촉촉한 촉감과 함께 심지어 존득한 찰기가 느껴진다. 충실한 중역을 중심으로 위아래 대역이 균형감 있게 화합하는 인상이다.



Mravinsky - Shostakovich Symphony No.5 4th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

므라빈스키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 번 4 악장에서 보여주는 섬뜩한 스피드와 기민한 강약 조절은 혀를 내두를 만큼 모든 주파수대역이 동일한 해상력으로 도열한다. 에너지가 높아질 때와 약해질 때의 증강폭이 매우 확연해 모든 음표들이 활기차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다.

이는 아바도가 지휘한 베르디 레퀴엠 중 'Dies irae'에서 포커싱은 물론 전/후 거리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레이어링도 여유 넘치는 거리를 인지할 수 있게끔 펼쳐진다. 이런 공간감은 고역과 중역의 주파수 전달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시간축 안에서 얼마만큼 녹음 소스의 좌/우 채널 정보가 정확하게 표현되는가에 달렸다. 오케스트라의 전망을 섬세하게 포착하기엔 좀 더 깊은 뎀스가 필요하지만 올라운드로서는 적절한 공간 표현력이다. 이런 공간감은 사실 푸치니보다는 코드 DAVE 의 역할이 꽤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편이 옳다

MAX RICHTER SLEEP



Max Richter - Dream 1

Sleep

막스 리히터의 'Dream 1'에서는 충격적인 초저역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다인 컨피던스 C4 에서도 이런 초저역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소스기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떤 앰프와의 조합에서도 이런 초저역을 경험하지 못했다.

초저역의 울림이 온몸으로 전해온다. 잠시 시청실의 천정과 벽이 일제히 공진하며 결국 소파를 타고 몸을 흔든다. 광대역 커버리지를 갖는 아큐톤 미드/베이스 우퍼의 40Hz 이하 초저역이 푸치니와의 매칭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발 끝 아래까지 부드럽고 힘있게 내려가는 것이 포착된다.



"충평"

틸&파트너가 만드는 아큐톤 유닛은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음향 특성을 갖는다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MP3 의 아버지 프라운호퍼와 응용고체 물리학 연구를 공조하는 등 그들의 R&D 는 매우 진지하며 진보적이다. 그러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물질은 매우 민감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아큐톤도 마찬가지여서 카르마, 마르텐, 아발론 최근의 타이달 등 세계 일류급 엔지니어들만이 아큐톤을 제대로 다룰 뿐이다. 현존하는 모든 스피커는 아큐톤을 사용했는가 아닌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특성은 명확하며 예민하고 독보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청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유의미한 소득은 예민한 임피던스와 주파수 특성을 갖는 고성능 아큐톤 스피커의 매칭에 관한 경험이다. 유수의 초하이엔드 앰프에서도 표현되지 못했던 선형적인 저역이 뜬금없이 AB 클래스 80 와트짜리 푸치니 인티앰프에서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높은 파고의 에너지감과 다이내믹레인지는 철옹성 같은 방파제를 타고 넘어 끝내 정복하지 못했던 영토를 삼켜버렸다.

국내에 여러 스타일의 아큐톤 스피커들이 명멸하고 있으나 S62 는 하나의 일대 전환이 될 것이다. 총천연색으로 펼쳐지는 소리의 파동들을 생략 없이 여러 패턴으로 날날이 보여주는 S62 는 국내 아큐톤 스피커는 물론 힘사운드 자체 라인업에서도 일종의 레퍼런스로 기억될 듯하다.

Written by 칼럼니스트 코난

Specification	
Type	2 way 후면 포트형
Frequency Range	38 Hz - 30 kHz
Impedance	6 Ohms
Sensitivity	87 dB
Normal Power	120 W
Tweeter Unit	1" Accuton Ceramic 역돔
Midrange Unit	7" Accuton Ceramic 콘
배플 기술기	2 도
Termination	Single-wiring 로둠 단자
Dimensions	220 x 300 x 410 mm
Weight	11 Kg
색상	레드, 월넛
HimSound S62 Speaker	
제작사	힘사운드
제작사 연락처	041-931-7117
제작사 홈페이지	www.himsound.com